

맷 감독 “닥공 야구 하겠다”

(닥치고 공격)

KIA 선수단, 美 플로리다 캠프 귀국

45일간 체력 훈련·연습경기

선수 기량 점검·기술 완성도 높여

마운드·수비까지 공격적 플레이

개막때까지 연습경기로 컨디션 유지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프링캠프를 열었던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16일 귀국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캠프에서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몸을 만든 선수단은 미국 대학 및 독립리그 연합팀과 20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경험도 쌓았다.

KIA에서 첫 스프링캠프를 지휘한 윌리엄스 감독은 “예정보다 길어졌던 캠프를 성공적으로 소화한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모두에게 고맙다”며 “많은 연습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했고,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유익한 캠프였다”고 평가했다.

이하 윌리엄스 감독과 일문일답.

-스프링캠프는 어땠나(총평)

▲굉장히 잘 진행됐고 만족스러운 캠프였다. 선수들이 많은 연습경기를 통해서 발전했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캠프였다. -스프링캠프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는지.

▲가장 집중했던 건 기술적인 부분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연습경기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좋았던 점이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 좋아져야 할 부분이 있다. 국내 훈련과 시즌을 치르며 더욱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많은 선수들이 캠프 종료까지 함께 했다. 캠프를 치르면서 기량이 크게 좋아진 선수가 있는지.

▲젊은 선수들 모두가 성장했다고 본다. 캠프 기간이 길어진 것이 오히려 좋은 영향이 됐다. 경기 수가 많아지면서 젊은 선수들의 출장 기회가 늘고 좋은 경험을 쌓았다.

-시범경기가 취소됐다. 상대팀을 파악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른 팀과 경기를 치르거나, 다른 팀의 경기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보고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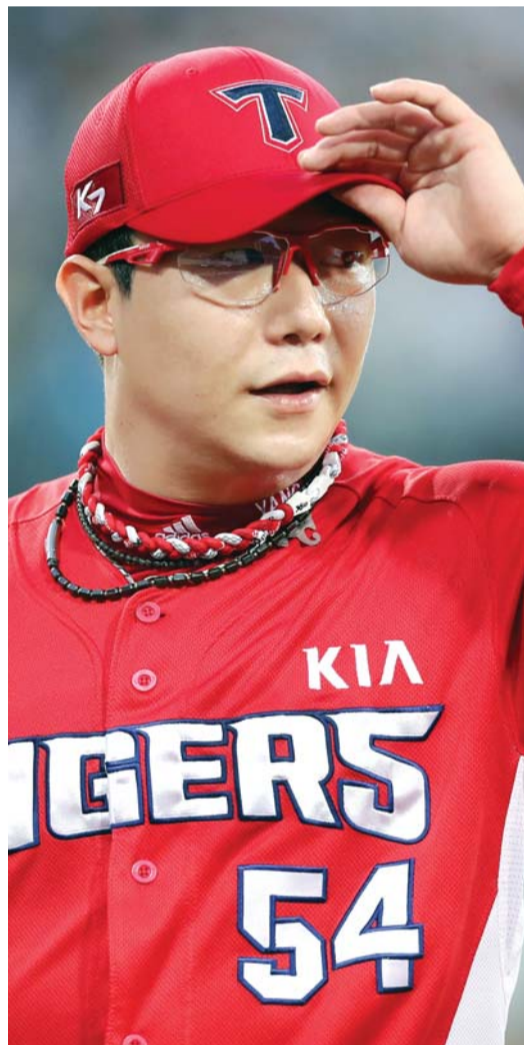
-한국에서 다른 팀과 연습경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개막전까지 훈련 계획은 어떻게 되나.

▲자체 흥행전으로 실전을 이어갈 생각이다. 개막전이 미뤄지긴 했지만, 연습경기를 통해서 최대한 실전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KBO리그 데뷔 시즌이다. 어떤 야구를 보여주고 싶은지.

▲팬 여러분께 공격적인 야구를 보여 드리고 싶다. 타격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운드와 수비에서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팀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해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자신감 충전 완료”

‘호랑이 군단’이 돌아왔다.

스프링캠프를 끝내고 귀국한 KIA 타이거즈 투타의 핵심 양현종과 최형우는 ‘팀’을 우선으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보내겠다는 각오다.

두 사람은 2020년에도 KIA의 중심 전력이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담긴 시즌이다. 두 사람은 올 시즌이 끝나면 다시 FA(자유계약) 자격을 얻는다. 특히 양현종은 ‘빅리그 진출’이라는 목표에도 도전한다.

시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양현종은 “아픈 데 없이 훈련을 잘 소화했다. 개막에 맞춰서 순조롭게 몸상태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형우도 “목표했던 대로 몸을 잘 만들었다. 외국인 감독님 특성상 운동 시작할 때부터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고, 그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훈련했다”고 캠프를 평가했다.

준비는 잘 이뤄졌지만 시범경기 취소와 개막 연기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노련한 두 사람은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양현종은 “물론 페이스 조절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쁜 아니라 모든 선수가 감안 해야 할 문제이고, 이겨내야 할 문제다”며 “특

양현종

시즌 후 FA...빅리그 진출 목표

지난해와 같은 성적 자신 있어

‘코로나 변수’ 이겨내겠다

최형우

3번 타순으로 지명타자 역할

찬스 오면 해결하는 게 내 임무

타격감 상승...컨디션 유지 최우선

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잘 준비한다면 작년과 같은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자신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형우는 “지금 타격감이 좋은 상태라, 개막전까지의 공백이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10개 구단 모든 선수들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며 “한국에서 훈련과 자체 연습경기를 통해서 다시 타격감을 끌어 올리고, 개막전 일정에

맞게 컨디션을 유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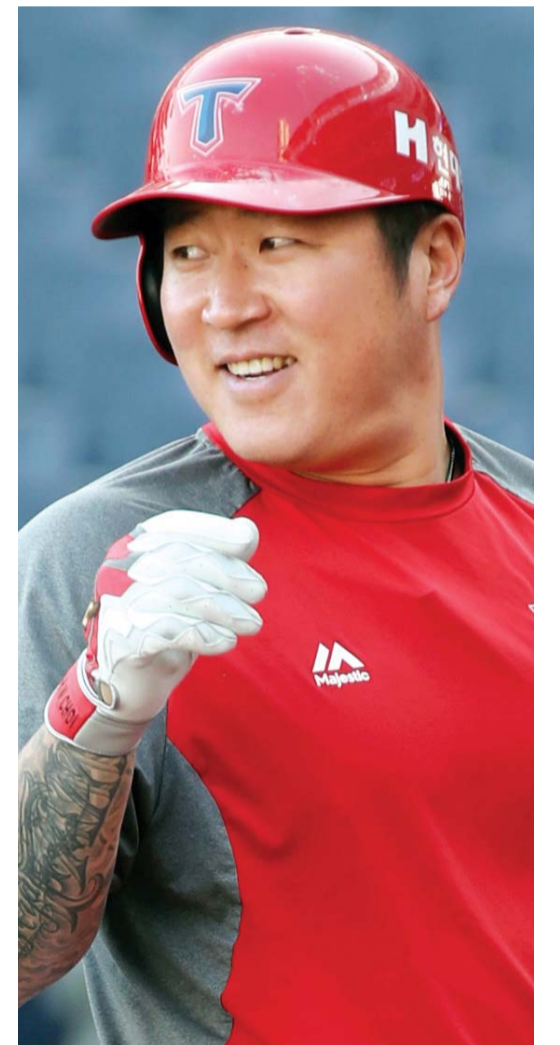
올 시즌 두 사람에게 새로운 역할도 맡겨졌다. 양현종은 ‘주장’으로서도 팀 전면에 서야 하고, 최형우는 3번 타순에서 지명타자로 많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양현종은 “선배들이 잘 따라와 줘서 특별한 부담감 없이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긴다”며 “시즌 끝나면 FA 문제가 남아 있지만 팀이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는 걸 더 신경 써야 한다. 개인적인 목표는 아프지 않고 한 시즌 선발 마운드를 지키면서 더 많은 이닝을 던지는 것이다”고 밝혔다.

연습경기에서 나지완의 앞, 3번 자리에 섰던 최형우는 “3번은 1회에도 칠 수 있는 거고, 4번은 다음 이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차이일 뿐이다”며 “타순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찬스가 오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내 임무이다. 거기에 집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작년부터 조금씩 지명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직 완벽히 적응했다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역할에 맞게 컨디션을 맞춰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명타자에 맞게 시즌을 치를 수 있도록 잘 준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형우

유럽 축구 ‘플랜 B’ 논의

유럽축구연맹 긴급회의의...유로2020 연기·챌스리그 일정 축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스톱’된 유럽 축구가 새 일정 짜기에 들어간다.

16일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유럽축구연맹(UEFA)이 17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2020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를 포함해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등 현재 ‘올스톱’된 주관 대회의 새 일정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논의 사항은 올여름 열릴 예정인, 월드컵 다음으로 권위 있는 축구대회 유로 2020이다.

유로2020은 대회 6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국 한 곳이 아닌 유럽 12개국, 12개 도시에서 나누어 열릴 예정이었다.

이들 도시 중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도시는 개최지에서 제외하고 다른 도시에서 해당 경기 일정을 추가로 소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개최지를 변경하는 게 UEFA의 기존 방침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을 강타하고 있어 대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는 모양새다.

현지 언론은 UEFA가 올해 12월 유로 2020을 연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남자 국가대표전이 없는 내년 여름으로 아예 1년 연기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이탈리아는 대회 연기를 UEFA에 공식 요청키로 했다. 세리에A는 내달 3일까지 리그가 중단된 상태다.

유로 2020이 가장 큰 문제라면,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는 가장 시급한 문제다.

5개 빅리그를 포함한 유럽 대부분 대회가 중단된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의 남은 대회 일정 축소는 불가피해졌다.

영국 신문 ‘더 텔레그래프’는 이번 UEFA 긴급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파이널 포(4)’와 ‘압축 8강’, 크게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이널 포’는 국가대표전인 UEFA 네이션스리그에서 쓰이는 방식이다. 4개 팀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개최지로 예정됐던 터키 이스탄불에 모여 나흘간 준결승 2경기, 3-4위 결정전, 결승전을 치러 우승팀을 가린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이지만 이 경우 준결승에 오를 네 팀을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다. 챔피언스리그는 16강전 2차전의 8경기 중 4경기를 남겨놓고 중단된 상태다.

‘압축 8강’은 남은 모든 단계를 살려두되, 8강과 4강의 홈 앤드 어웨이를 단판 승부로 줄이고, 8강부터 결승까지 단 연을 안에 끝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결정된다면 단판 승부를 어느 팀 홈구장에서 치를지를 정하는 게 문제가 될 전망이다. UEFA는 아예 올 시즌 두 대회를 ‘없던 일’로 만드는 방안도 긴급회의에 선택지로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여자프로농구 ‘코로나 이탈’ 비상

부천 하나은행·부산 BNK 등 주축 선수 고국행...PO 경쟁 변수

여자프로농구에서도 외국인 선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을 떠났다.

부천 하나은행의 마이샤 하인스 알렌(25·185cm)과 부산 BNK의 다미리스 단타스(28·192cm)가 지난주 팀을 떠나 각각 고국인 미국과 브라질로 돌아갔다.

마이샤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27경기에 나와 평균 19점에 11.6리바운드를 기록했고, 단타스는 20.2점에 9.3리바운드의 성적을 낸 팀의 핵심 전력이다.

이들이 빠지면 하나은행과 BNK는 리그가 재개될 경우 플레이오프(PO) 진출 경쟁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10일부터 24일까지 중단된 상태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리그 재개 여부 등에 관한 앞으로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순위는 하나은행(11승 16패)이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3위, 인천 신한은행(11승 17패)이 4위, BNK(10승 17패)는 5위다.

/연합뉴스

이강인 코로나19 걱정되네

소속팀 발렌시아 구단 선수 5명 확진 판정

이강인이 뛰는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발렌시아 구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이나 나왔다.

발렌시아 구단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1군 선수단 스태프와 선수들 가운데 5명이 코로나19 검

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며 “이들은 모두 집에서 건강한 상태로 자가 격리돼 있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스페인 언론들은 중앙 수비수인 에세기

/연합뉴스

그러나 하나은행과 BNK의 외국인 선수가 사실상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남은 경기에 전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마이샤는 리그 재개 시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특성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타스는 16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한국어로 인사말을 남기며 2019-2020시즌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하나은행, BNK와 치열한 3위 다툼을 벌이는 신한은행은 아이샤 서덜랜드(30·185cm)가 팀에 남아 있다.

따라서 리그가 재개되면 하나은행, BNK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다만 신한은행은 이미 하나은행, BNK와 정규리그 맞대결이 모두 끝났고, 잔여 경기도 2경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다.

/연합뉴스

엘 가리아와 엘리야킴 망갈라, 왼쪽 폴백 호세 루이스 가야를 비롯해 코칭스태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가리아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뛰는 선수들 가운데 ‘1호 확진자’가 됐다.

가리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2020년이 불운으로 시작했다. 건강 상태는 좋다. 자가격리를 잘 따르겠다”라는 글을 남겼고, 망갈라와 가야 역시 SNS를 통해 집에서 자가격리를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